

‘나주 시민의 상’ 주인공 찾는다

내달 10일까지 추천 접수

나주시가 12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 영예 상훈인 2023년 ‘시민의 상’ 주인공을 찾는다.

나주시는 총 5개 부문 ‘나주시민 상’ 후보자를 오는 7월 10일까지 추천(접수) 받는다. 12일 밝혔다.

상훈 부문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 ‘산업경제’, ‘교육문화’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공경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1명씩 선정한다.

후보 대상자는 나주시에 등록 거주자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부문별 공적이 뚜렷한 시민이다.

각 부문별 공적과 관계된 기관장, 나주시 실·단·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나주시청 총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 서식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

수상자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3명을 비롯해 부문별로 학식과 경험, 조예가 깊은 시민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의 상 수상은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조성준 기자

“칼로리 낮추고 건강 올렸다” 장흥 표고음료 재출시

표고 하이볼·표고 에이드 등 젊은 소비자 겨냥 제품 개발

김성 군수 “장흥 농특산물 활용한 밀키트 상품 개발 주력”

장흥군 대표 특산물인 원목표고버섯을 활용해 만든 ‘표고버섯 음료’가 재출시됐다.

장흥표고음료는 1999년 최초로 개발되어 연간 60만 캔 이상 꾸준히 판매된 지역 대표 음료다.

표고음료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탄탄하게 자리매김했으나, 지난 2021년 생산 공장의 화재로 판매가 중단됐다.

올해 2월, 장흥군은 정남진장흥농협, 다인음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생산을 협의에 돌입했다. 이어 장흥군과 전문가가 참여한 시

음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기존의 상품보다 더 나은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기존 제품을 보완한 결과, 이전보다 칼로리를 낮춘 새로운 버전의 표고음료가 출시됐다.

새로운 표고음료는 이달 12일부터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마트, 관내 마트, 특산물 판매장(토요시장) 등에서 판매한다.

장흥군과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9일 표고음료 출시를 기념하여 직원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식당 및 공급업체에 무상으로

시음용 표고음료를 제공하는 등 판촉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MZ세대 ‘하이볼’ 열풍에 힘입어 쉽고 재미있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표고 하이볼, 표고 에이드 밀키트를 한정수량 제작할 계획이다.

이는 다가오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7.29.~8.6.), 통합의학박람회(9.8.~9.14.)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상품 표고음료를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앞으로 장흥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밀키트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례관리 위주 구성

담양군은 지난 8일과 9일 읍·면 신규 복지공무원 포함 2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상담에서부터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 사회복지 업무를 행복이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인이 많은 담양군의 경우 더 많

은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을 통한 다양한 욕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인의 복지 욕구를 상담으로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신청은 물론 사례관리 연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담양=조성재 기자

영광,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 개최

영광군은 지난 8일 영광스런 청년들과 함께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청년공동체 9팀의 청년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체간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의 협력을 응원하며 청년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의 성장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공동체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관



계를 형성하는 등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의지와 도전

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위대한 영광,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화순군은 오는 22일까지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여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모집 대상은 장애인 34명과 저소득층 240명 등 총 274명으로 오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행상품은 당일 여행상품으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동반 1인을 추가해 총 3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여행상품은 총 6개 상품으로 장애인 2, 저소득 4 여행참가자가 여행상품 신청 시 선정된 여행상품 중 원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여행상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도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체적·경제적 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계층에게 아름다운 남도 관광지를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취약계층들이 행복한 여행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전통주와 함께하는 어울림음악회’ 성료

군민·전남 전통주 생산업체 ‘한자리’

장성군은 지난 10일 황룡면 와곡마을에 위치한 카페 ‘더풍류’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어울림음악회’를 개최했다.

군민 100여 명과 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업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성에서는 ㈜청산녹수와 ㈜더풍류가 참여했다. ㈜청산녹수는 미생물 전문가 김진만 전남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전통적인 방식에 과학 이론을 접목해 술의 제조, 발효, 저장법 등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사미인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풍류는 전통주 장인 김병기 대표가 설립한 농협회사법인이다.

김 대표는 전통주 소믈리에 1급 보유자다. 2011년 남도우리술연구소를 개설해 전통주 교육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이달의 전통주’에 2회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토코쇼’와 공연으로 구성됐다. ‘토코쇼’에선 약주의 시조라 불리는 ‘약산춘’ 전승자 서규리 씨와 충청도 술 ‘노산춘’ 전승자 이미리 씨가 참석해 전통주 제조 비법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벨리 댄스, 관현악 3중주, 고전 무용, 통기타 가요, 트로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과 볼거리가 펼쳐졌다.

/장성=심재식 기자

함평,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추진

기계 수확 시연회 성료... 인력·비용 절감 기대

내년까지 32억 투입... 기계화 면적 대폭 확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보면 대장리 일원에서 지난 8일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파 재배농가, 군청, 농협 등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양파 줄기 절단기 및 자주식 수집기를 이용한 본백 수집 과정을 잠관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수확 시기가 6월 초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해

마다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32억원(국비 16억)을 투입,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계화 면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경우 관행 대비 노동력은 68.8% 작업비는 46.7%가 절감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멜로우 시티



장성군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멜로우시티 장성